

<2023년 고충처리 기록>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상기
신청인	독자전화	접수일	23/01/11	종료일	23/01/12
기사 제목	솔로몬영성교육 '속독영성캠프'				
신청 내용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교육비까지 내고 현장에 갔으나 수강생 적다며 일방 취소. 전액 환불도 거부				
처리 결과	바이라인 없는 광고성 기사로 판단해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재중
신청인	익명 이메일	접수일	23/01/15	종료일	23/01/17
기사 제목	빛나는 다음세대 위한 회복의 징검다리 소망				
신청 내용	기사에 등장하는 김**이라는 인물이 학폭 가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기사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호소				
처리 결과	종교국의 별지 섹션을 만드는 객원기자가 쓴 홍보성 기사라고 판단해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김**	접수일	23/02/16	종료일	23/02/16
기사 제목	인천 택시기사 실랑이 60대 사망				
신청 내용	사망자 유가족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 담은 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기자가 직접 통화해 기사 수정 후 댓글 창 폐쇄				

제목	기업 실명 노출 선처 요청			처리자	지호일
신청인	상****	접수일	23/02/16	종료일	23/02/21
기사 제목	단독/고용부 특별감독				
신청 내용	기업 실명 노출로 많은 피해, 선처 요청				
처리 결과	익명 처리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주)싸*** 경영 지원팀	접수일	23/02/27	종료일	보류
기사 제목	싸*** 화재 진화 등 3건				
신청 내용	화재 이후 4년6개월 지나 정상 영업 중이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처리 결과	담당 부장의 부정적 입장 표명으로 보류				

제목	기사 게시 중지 요청			처리자	강창욱
신청인	최**	접수일	23/02/23	종료일	23/02/28
기사 제목	성범죄자 선처 세트 팔아요...영터리 심리상담에 55만원 뭉치? 당신들 유명인가...범죄심리상담업의 실체				
신청 내용	인터뷰를 동의 없이 보도했으므로 삭제해 달라				
처리 결과	취재 및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당시 이슈팀장 의견에 따라 반려				

제목	부고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상기
신청인	노**	접수일	23/03/07	종료일	23/03/08
기사 제목	노**씨 별세				
신청 내용	유족으로서 오래 경과된 부고 기사 보도되길 원하지 않음				
처리 결과	삭제				

제목	실명 비공개 요청			처리자	정승훈
신청인	한**	접수일	23/04/08	종료일	23/04/09
기사 제목	韓송환 피하려는 '최순실 집사'... 네덜란드어 익혀 적극 변론				
신청 내용	공인이 아닌데도 실명이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				
처리 결과	실명을 A씨로 변경해 익명 처리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상기
신청인	김**	접수일	23/04/19	종료일	23/04/25
기사 제목	“차 못 빼” 화순 국화축제가 ‘주차축제’ 됐다는 사연에 응장한 네티즌				
신청 내용	주택 사진 등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 원 게시자는 형사처벌 받았다고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상기
신청인	서**	접수일	23/05/11	종료일	23/05/31
기사 제목	연음어린이합창단, ‘2021 The Together Project’ 운영 외 1건				
신청 내용	내부사정으로 폐단해 관련 기사 및 사진 파기 중이므로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상기
신청인	차**	접수일	23/05/18	종료일	23/05/19
기사 제목	새벽 검은옷 입은 노인 치어 사망...버스 기사 무죄				
신청 내용	유족이 정신적 충격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정**	접수일	23/06/08	종료일	23/06/21
기사 제목	‘마약’ 원어민 강사, 어린이집서 아찔한 ‘환각수업’				
신청 내용	오래 전 사건이고 오보가 있으므로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삭제 요청			처리자	김상기
신청인	박**	접수일	23/06/29	종료일	23/06/29
기사 제목	제이더블유지, 소비자가 뽑은 ‘2017 고객선택브랜드지수1위’ 수상				
신청 내용	사업 중단으로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본문의 문제점			처리자	고충처리인
신청인	안**	접수일	23/07/01	종료일	23/07/02
기사 제목	美 대법 “종교적 신념, ‘동성 커플’ 서비스 거부 가능”				
신청 내용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이 기사에 들어있다. 사시에 어긋난다				
처리 결과	담당 기자에게 전달하겠다 답변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신청인	싸*** 경영지 원팀	접수일	23/07/26	종료일	23/07/26
기사 제목	싸*** 화재 진화... 유해물질 누출 공포에 긴급재난문자 ‘긴박’ 외 2건				
신청 내용	오래 전 사건인데 포털에서 검색돼 기업활동에 차질이 있음				
처리 결과	삭제 불가				

제목	기사 수정 요청			처리자	이광수
신청인	박**	접수일	23/08/30	종료일	23/08/31
기사 제목	"소액주주 우습게 보면 큰일... 이틀만에 지분 7% 모였다"				
신청 내용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요청				
처리 결과	수정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이슈탐사팀
신청인	최**	접수일	23/09/14	종료일	23/09/15
기사 제목	민식 부모가 고소한 유튜버 “7억, 불륜, 전부 사실” 반박 외 1건				
신청 내용	유튜버 활동 중단해 활동명 드러내고 싶지 않음. 익명 처리 또는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처리자	이슈탐사팀
신청인	최**	접수일	23/09/17	종료일	23/09/18
기사 제목	“더 맵게하려다 괴물 됐다”... 유튜브 중독 알고리즘 외 1건				
신청 내용	유튜버 활동 중단해 활동명 드러내고 싶지 않음. 익명 처리 또는 삭제 요청				
처리 결과	그래픽까지 수정해야 하는데 탐사보도의 성격상 기사 가치가 많이 저함됨. 삭제 및 수정 불가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이**	접수일	23/10/04	종료일	23/10/05
기사 제목	부부싸움하다가 남편에 흥기휘둘러...광명시 공무원체포				
신청 내용	불기소처분 받았으므로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곽**	접수일	23/10/16	종료일	23/10/20
기사 제목	도봉구 6세 나린이 의문사 사건 재조명...처벌 4년 넘게 미뤄				
신청 내용	대법원에서 무혐의 확정 판결 났으므로 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정승훈
신청인	유**	접수일	23/11/08	종료일	23/11/08
기사 제목	'가장 폭행 만취녀' 엄마 "딸 크게 성장할 기회"				
신청 내용	피해자와 합의 끝냈고 2년 지난 사건이 블로그, 유튜브 등의 2차, 3차 게시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정보 유포돼 고통 받고 있으므로 선처(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정승훈
신청인	유**	접수일	23/11/08	종료일	23/11/08
기사 제목	'만취녀에 폭행' 40대 가장 "전효성 여가부 영상 내려라"				
신청 내용	피해자와 합의 끝냈고 2년 지난 사건이 블로그, 유튜브 등의 2차, 3차 게시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정보 유포돼 고통 받고 있으므로 선처(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정승훈
신청인	유**	접수일	23/11/08	종료일	23/11/08
기사 제목	40대 가장 때린 20대 만취 여성… 경찰에도 욕설 난동				
신청 내용	피해자와 합의 끝냈고 2년 지난 사건이 블로그, 유튜브 등의 2차, 3차 게시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정보 유포돼 고통 받고 있으므로 선처(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정승훈
신청인	유**	접수일	23/11/08	종료일	23/11/08
기사 제목	애들 보는데 40대 가장 때린 만취녀 “사과할 생각 없다”				
신청 내용	피해자와 합의 끝냈고 2년 지난 사건이 블로그, 유튜브 등의 2차, 3차 게시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정보 유포돼 고통 받고 있으므로 선처(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정승훈
신청인	유**	접수일	23/11/08	종료일	23/11/08
기사 제목	만취녀에게 맞는 40대 영상 파문… “성추행범 몰려 억울”				
신청 내용	피해자와 합의 끝냈고 2년 지난 사건이 블로그, 유튜브 등의 2차, 3차 게시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정보 유포돼 고통 받고 있으므로 선처(기사 삭제)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삭제 요청			처리자	지호일
신청인	허**	접수일	23/11/23	종료일	23/11/23
기사 제목	수능 직전 “군대 간다” 편지 두고 사라진 N수생… 행방은?				
신청 내용	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수험생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입대한 상태. 자신의 얘기가 이슈화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부모에게 연락을 해와서 아버지가 기사 삭제를 요청				
처리 결과	삭제				

제목	기사 본문 수정 요구			처리자	박재찬
신청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접수일	23/12/03	종료일	23/12/03
기사 제목	[오늘의 설교]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신청 내용	11월 18일자 기사에 등장하는 '얇은뱅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자칫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 '지체장애인'이나 '하반신 장애인'으로 사용해 달라는 요청. 동시에 얇은뱅이 표현을 하반신 장애인으로 바꿔서 온라인에 나간 해당 기사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				
처리 결과	기사 본문 수정해서 온라인 재전송 및 해당 부서에 주의 요청				

제목	기사 삭제 혹은 정정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마인드포스트 옴부즈맨 센터	접수일	23/12/12	종료일	23/12/13
기사 제목	[단독] 치료 감호 '조현병 살인범' 73% 6개월 이상 약물 중단 후 범행				
신청 내용	<p>1. 자극적인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사는 헤드라인에서 '조현병 살인범'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하며 조현병과 살인을 자극적으로 연관지으며 조현병 환자들의 잔혹한 범죄를 강조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조현병 당사자들을 전체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일반화 시킬 위험이 있는 기사로 판단되므로 중립적인 표현으로의 수정을 요구합니다.</p> <p>2. 조현병 당사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에 보다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사는 사법입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성된 기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신감정 분석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나 지능, 혼인 여부를 같이 기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요소인지 의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지능과 학력, 미혼인 점을 보았을 때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사실을 어떠한 필요에 의해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조현병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손쉬운 행정입원'이 가져왔던 폐단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간 국내의 반인권적인 강제입원 제도와 병원 환경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안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사에 나와 있듯 정신과 입원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은 병식이 없는 조현병 당사자들의 과제와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말만으로 병원에 묶여있는 경험은 당사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조현병 당사자의 가족 역시 만연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드러낼 수 없는 현실에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신질환자 관점에서 작성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글은 당사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p> <p>3.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이 어떠한 경우에 선고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기사의 조사 대상자인 조현병 환자 100명은 전부 국립법무병원에 치료감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대상자가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결국 조현병에 대한 공포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치료감호가 어떠한 경우에 선고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역시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처리 결과					



제목	기사 삭제 혹은 정정 요청			처리자	김나래
신청인	마인드포스트 옴부즈맨 센터	접수일	23/12/12	종료일	23/12/13
기사 제목	[단독] 치료 감호 '조현병 살인범' 73% 6개월 이상 약물 중단 후 범행				
신청 내용	<p>국립 법무병원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결국 이곳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수용되는 곳으로, 비정신질환자가 수감되는 교도소와 유사한 특수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국립법무병원에 범법 정신질환자가 769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60% 가량이 조현병 환자라고 서술하며 독자로 하여금 '많은 수의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p> <p>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 대부분은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증상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소개된 국립법무병원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치료를 요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증명된' 중증 정신질환자가 수용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현재 수감된 인원 역시 1,000명 내외로 그만큼 증세가 심각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마치 범죄자의 표본인 양 예시를 들며 '조현병 환자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p>				
처리 결과	<p>내부 논의를 거쳐 지적 사항에 대한 국민일보의 설명과 입장을 3개 항목에 걸쳐 전달. 조현병이나 조현병 환자 일반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 법무병원에 수감된 조현병 환자 100명을 분석한 기사인 점, 국립 법무병원에서 조현병 환자의 살인 예방을 위해 어떤 치료적 지원이 필요한지 연구한 내용을 취재해 쓴 점, 기사에 나오는 정신감정 대상 100명이 '살인을 저지른 후 치료감호 선고된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설명.</p> <p>또한 기사에서 지능과 학력, 결혼 여부를 언급한 것은 치료감호된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배경을 가진 약자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쓴 문장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와 퇴원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보도한 기사라는 점도 추가 설명.</p> <p>이어 '조현병 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내용은 기사 어디에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설명.</p>				